

도전은 멈췄지만...순천시청 강유정 '식발 투혼' 빛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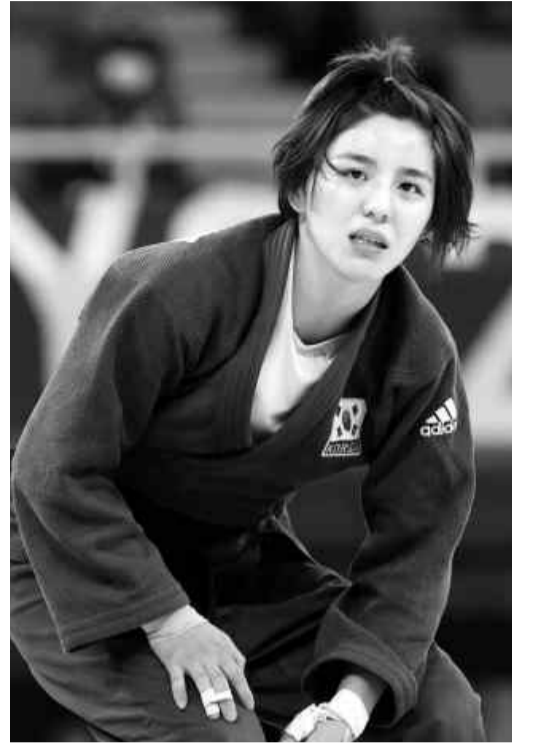


24일 오전 일본 무도관에서 열린 여자 유도 48kg급 예선 32강 대한민국 강유정 대 슬로베니아 스탄가르 마루사 경기. 강유정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도 계체 5분 남기고 체중 넘어
문구용 가위로 머리카락 잘라
탈수·현기증에 응급처치까지
패배 딛고 박다솔 훈련 도우미로
박다솔도 패자부활전서 패해

인생의 쓴맛을 본 다음 날의 아침을 기억하는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그날, 많은 이는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25일 아침은 여자 유도 국가대표 강유정(25·순천시청)에게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강유정은 전날 열린 도쿄올림픽 유도 여자 48kg급 32강에서 스탄가르 마루사(슬로베니아)에게 2분 만에 역전패했다. 2015년 십자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던 강유정은 부상 재발로 재수술을 받는 등 난관 속에서도 지난 5년 동안 올림픽 무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계체량 통과에 어려움을 겪자 머리카락까지 하얗게 밀어버릴 정도로 절실했다. 유도 선수들은 대회 전날에 도쿄올림픽 선수촌 계체실에서 몸무게를 재야 하는데, 이때 계체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격된다. 48kg급은 48.5kg까지 계체를 통과할 수 있다. 계체 시간은 경기 전날 오후 8시. 강유정은 23일 오전부터 음식 섭취를 하지 않고 몸안의 수분을 짜내고 또 짜냈다. 탈수 증세와 현기증으로 응급처치까지 받았지만 계체까지 5분을 남겨두고 체중계 눈금은 48.650kg을 가리켰다. 올림픽이 간절했던 강유정은 "머리카락을 깎겠

다"고 했다. 배상일 감독과 김정훈 코치는 급하게 문구용 가위를 가져와 강유정의 머리를 밀었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체중계 위에 올라갔다. 머리를 하얗게 민 강유정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눈금을 보고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계체 통과였다. 그러나 그는 '식발 투혼'에도 1라운드에서 허무하게 역전 누르기 한판패를 기록하면서 고개를 떨쳤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 강유정은 선수촌에서 도복을 챙겨 경기장으로 나섰다. 이유는 단 하나. 이날 여자 52kg급에 출전하는 박다솔(25·순천시청)의 훈련 도우미가 되기 위해서였다. 강유정은 박다솔의 마지막 훈련 상대를 자처하며 고통의 순간을 맞았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 섰다. 강유정은 있는 힘을 다해 박다솔의 훈련을 도왔다. 기술 자세에 관해서 조언했고, 훈련 중 지쳐 쓰러진 박다솔을 일으켜 세우며 힘을 북돋아 줬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평소 올림픽엔 훈련 파트너가 동행해 선수들의 훈련을 돕는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장 출입이 가능한 AD(Accreditation)카드 발급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코치진, 파트너가 함께하지 못했다. 경기를 마친 선수가 경기를 앞둔 선수를 도와야 하는 환경이다. 강유정은 이런 노력에도 아쉽게도 박다솔의 메달 획득 장면을 지켜보지 못했다. 박다솔은 유도 여자 52kg급 8강전 아망딘 뷔샤르(프랑스·세계랭킹 2위)와 경기에서 59초 만에 세



25일 도쿄 지요다구 일본 무도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유도 여자 52kg급 8강전에 출전한 한국 박다솔이 아망딘 뷔샤르(프랑스)에게 패배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누르기 한판패를 당했다.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천적'에게 다시 한번 완패하며 도쿄올림픽 '금빛 도전'에 실패한 박다솔은 레카 푸프(헝가리)와의 패자부활전에서도 허벅다리걸기 절반패를 기록했다. 그는 치열한 잡기 싸움을 펼치다 경기 종료 48초를 남기고 통탄의 절반을 내주며 눈물로 도쿄올림픽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강자들의 무덤...이번 속출

세계 랭킹 1위 펜싱 오상욱·태권도 이대훈 등 줄줄이 고배

코로나19로 멈췄던 스포츠, 2020 도쿄올림픽에서 이번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 대회 개막 후 첫날이었던 지난 24일을 '골든데이'로 주목했다. 하지만 굵직한 이틀들 앞에 '이번'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먼저 진종오가 남자 10m 공기권총 본선에서 탈락의 쓴잔을 들었다. 2004년 아테네 대회를 시작으로 2016년 리우까지 4번의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과 2개의 은메달을 목에 건 '사격 황제' 진종오는 이 종목에서도 금메달과 은메달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24일 열린 공기권총 본선에서 576점(평균 9.600점)으로 15위에 그쳐 8명에게 주어지는 결선 자격을 얻지 못했다. 코로나19로 국제대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세계랭킹'도 무의미해졌다. 한국의 '세계 랭킹 1위'들도 이번의 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펜싱 남자 사브르 세계랭킹 1위 오상욱(25·성남시청)은 준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상욱은 개인전 8강에서 산드로 바자제(조지아)에게 13-15 패배를 기록했다.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 2관왕으로 2년 연속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던 오상욱이지만 16강전에서 발목 부상을 입는 등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8강에 만족해야 했다. 태권도도 이번의 무대가 되고 있다. 24일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남자 58kg급의 장준(21·한국체대)은 첫 올림픽 메달에 의의를 뒤야 했다. 장준은 4강에서 만난 세계랭킹 23위인 모하메드 칼릴 켈투비(19·튀니지)에게 19-25로 겨 결승진

출에 실패했다. 장준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오마르 살림(18·헝가리)을 상대로 뒤늦게 화끈한 공세를 펼치며 46-16 완승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5일에도 태권도에는 이번의 바람이 불었다. 세계랭킹 1위이자 '태권 아이돌' 이대훈(29·대전시청)이 세 번째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도전에 실패했다. 첫판에서 기록된 패배였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다. 이대훈은 태권도 경기 이틀째 남자 68kg급 16강전에서 울루그벡 라시토프(우즈베키스탄)와의 연장 승부 끝에 패자가 됐다.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정상이란 정상은 모두 오른 이대훈이지만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이 없었다. 이대훈은 58kg급에 출전한 런던 대회에서는 은메달, 체급을 바꾼 68kg급에 나선 리우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대훈은 '그랜드슬램'의 꿈을 안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에 나섰지만 랭킹 32위의 선수에게 털미를 잡혔다. 1라운드에서 10-3으로 앞서다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패배를 기록한 만큼 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여자 57kg급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했던 제이드 존스(영국)도 16강전에서 12-16, 충격적인 탈락을 했다. 부동의 세계랭킹 1위의 3연패를 저지한 이는 난민팀으로 올림픽에 참가한 키미야 알리자데 제누린. 5년 전 이란 대표로 리우올림픽에 나섰던 알리자데는 이번에는 난민팀으로 나와 파란의 주인공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의리 "막내라 생각 안하고 한팀 투수로 최선 다할 것"

김경문호 마지막 실전 마쳐
키움에 2-1 승...득점력 고민

'김경문호'가 키움히어로즈와의 평가전을 끝으로 올림픽 리허설을 마쳤다. KIA 타이거즈의 유일한 대표 이의리도 마지막 경기에서 몸을 풀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2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을 상대로 세 번째 평가전을 치렀다. 앞서 23일 상무야구단(9-0 승), 24일 LG트윈스(2-2 무승부)를 상대하며 1승 1무를 기록한 대표팀은 이날 강백호의 결승 솔로포로 2-1 승리를 장식했다. 대표팀에서 첫 실전에 나선 이의리는 0-0으로 맞선 4회말 고영표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왔다. 첫타자 이용규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이의리는 송성문의 좌익수 플라이로 투아웃을 만들었다. 이어 박동원을 짧은 중견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이닝을 정리했다. 1-0으로 앞선 5회말에는 선두타자 이지영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했다. 하지만 헛스윙 삼진으로 송우현을 잡았고, 김휘집과의 승부에서는 아웃카운트 2개를 동시에 올렸다. 2루수 김해성이 까다로운 타구를 건여 유격수 오지환에게 송구했고, 이어 1루로 공이 연결되면서 병살타가 기록됐다. 6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이의리는 전병우를 2루수 플라이로 잡았지만, 박준태에게 우측 안타를 내줬다. 이어 서건창의 좌중간 2루타로 1-1 동점을 허용했다. 풀카운트 승부 끝에 허준협을 좌익수 플라이를 잡은 이의리는 47구에서 등판을 마무리했다. 2.2이닝 3피안타 2탈삼진 1실점. 이의리는 경기가 끝난 뒤 진행된 대표팀 출정식

에서 '막내답지 않은' 투구를 다잡았다. 전날 '막내'들이 금메달을 합작한 양궁대표팀의 혼성단체전 경기를 봤다는 이의리는 "화이팅이 넘치고 보기 좋은 경기였다"며 "경기 때는 막내라고 생각 안 하고 한 팀의 투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던져 보겠다. 마운드에 올라가게 되면 웃고 던지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던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막내의 당찬 출사표에도 대표팀은 마지막 경기에서도 '득점력'이라는 고민을 남겼다. 비와 코로나19 취소 그리고 리그 중단 등의 여파로 '갑'이 떨어진 선수들은 전날 LG와의 평가전에서 고전했다. 6회까지 단 1안타를 뽑는데 그쳤던 대표팀은 1-2로 뒤진 9회말 겨우 동점을 만들며 2-2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키움과의 경기에서도 선발 이승호 공략에 실패한 대표팀은 3개의 병살타를 기록하는 등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4번 타자 강백호가 그나마 '한방'으로 대표팀에 힘을 실어줬다. 강백호는 1-1로 맞선 8회초 1사에서 김동혁의 직



2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올림픽 야구 대표팀과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4회말 교체 투입된 올림픽대표팀 이의리가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를 좌중간으로 보내면서 2-1 승리를 만들었다. 세 차례 실점을 통해 위망업을 마친 대표팀은 26일 일본으로 떠난다. 그리고 29일 오후 7시 이스라엘을 상대로 올림픽 첫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블랙 위도우
2관	블랙 위도우
3관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아이스 로드
4관	보스 베이비 2
5관	보스 베이비 2
6관	랑중
9관	랑중
7관 씨네커플	쿠루엘라, 컨서빙3: 악마가 시켰다, 워스, 더 레지드: 악령의 저주
8관 씨네커플	아이스 로드, 발신제한, 나만 보이니, 옥스포드 살인사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영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8. 21.(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